제4장

근대 중국 유학 연구

김현우

1. 머리말

본 장에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정보서비스(RISS)[1]를 중심으로 2015년 한국 연구자들의 중국 근현대 유교 연구 현황을 정리 · 평가하였다. 본 장의 연구 대상은 주로 1840년 아편전쟁부터 현재사이에 출현한 인물이나 학설에 대한 연구이다. 특히 올해는 중국의 일명 '유학열(儒學熱)'[2]과 관련한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중국에서는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 등 국가 지도자들이 공자학원 설립을 주도한 이후, 정부차원에서 유교적 가치를 복흥(復興)[3]하는 작업이 지속되어왔다. 특히 현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유교적 가치를 통해 내적으로는 중국 국인의 화합과 단결 및 시민도덕의 함양을, 외적으로는 문화 중심국으로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유교 연구도 이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장쩌민 이후 2014년까지 중국의 유교 관련 연구는 대부분 중국의 현대적 발전을 중국식 사회주의 발전 모델을 정립하는 과정에 유교가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이전의 유교 연구가 경제 발전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현대적 성장에 대한 철학적 해석이었다면 최근에는 해석보다는 21세기 중국식 패러다임, 더 나가서는 팬차이나의 가치로서 재조명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1978년 덩사오핑의 개혁개방정책이후 지속

1 www.riss.kr
2 한국에서는 유학과 유교를 대동소이한 의미로써 거의 동시에 사용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유교라는 명칭에는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여 유학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도 최근 중국의 유교적 가치에 대한 복흥을 '儒學熱'이라고 사용하였다.
3 이 보고서에서 사용한 '복흥(復興)'은 논자가 중국의 유학열을 가치 평가한 용어로 "복구와 부흥"을 뜻한다.

적으로 문화혁명의 그림자를 지워왔다. 특히 개혁개방정책의 성과가 하나 둘씩 드러나던 1980년대에는 일명 문화열文化熱이 발생하여 '중화'의 회복이 싹트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에 들면서 장쩌민 등 국가 지도자를 중심으로 공자와 유교 연구에 국가적 지원이 시작되었다.

특히 현 시진핑 시대를 맞아 최근 몇 년간 중국 정부 주도의 유학열은 국가 사회는 물론 문화면에서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그 중에서 최근 인상 깊은 것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들이다. 중국의 관공서 및 공항 등 대중밀집시설에는 대부분 전용 모니터에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나오고 있다.

富强 民主 文明 和諧 自由 平等 公正 法治 愛國 敬業 誠信 友善

귀양공항(2016. 09. 25)

이 가치들은 다분히 중국의 유교열 즉 유교 복흥과 맞물려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일정한 문제점도 있는데, 이러한 연구들이 대부분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학문을 정부가 주도할 경우 학적 탄력성이 급격히 위축되고, 오히려 관제적 성격의 연구만이 강조되는 등 경직성이 강화될 우려가 있다. 이미 『사고전서』처럼 우리는 중국의 역대 왕조의 정부가 자신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 유교 경전의 정본화를 수행했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다. 『사고전서』가 경우 위대한 집대성이라는 긍정의 평가와 동시에 '문옥(文獄)'이라 비판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것이 학술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여 연구자의 자율성을 억압하기 때문이다.

현재 유교와 관련한 중국 학계의 경직성은 예상대로 심각한 것이라 보여 진다.일례로 금년(2016)도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유교학회 창립3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종합토론 중에 나온 한 중국연구자의 장장 20여 분에 걸친 장황한 유교 예찬론(?)은 바로 중국 정부 주도의 유교 복흥이 중국 학계를 얼마나 제한하는지 확인하게 해 주는 에피소드였다. 그 분이 젊었을 시절에는 분명 유교는 "공자라는 시체를 무덤에서 다시 꺼내 깃발에 매달아 휘젓는 적대적 제국주의의 사생아"였기 때문이다.[4]

한편, 이러한 중국의 유학열에 맞물려 한국의 유교 연구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그중 한국에서는 양계초梁啓超와 관련한 연구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중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유교와 현 사회주의 중국을 연결시키는 매개 고리로 양계초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양계초는 이미 잘 알려진 대로 1902년을 중심으로 루소식 공화주의에서 브룬츠리(Johann Caspar (또는 Kaspar) Bluntschli, 1808 – 1881)식 전제정으로 다시 1917년을 중심으로 독일식 전제정에서 전통 중화 유교주의로의 변화를 택했다. 특히 1920년에 발표한 『선진정치사상사』에서는 당시 새로운 국가체제로 등장한 사회주의를 유교와 연결시키면

4 不同時代的建地主階級或資産階級都喜歡打着"尊孔"的旗号, 抬出孔子的幽灵作爲向 人民進行欺騙說教的一種手段. 在民族矛盾銳的時期, 他们强調孔子的王攘夷, 保 卫傳統文化的方面. 当征服或新王朝的開倉取得政權時, 他们就强調孔子學說中定 于一, 君臣大義不可违抗这一方面. 当中央政權削約˙ 地方割據勢力抬头時期, 中央政 治就利用孔子的"禮征伐自天子出"的反僭越的思想, 如此等等. 至于孔子學說中 占主地位的唯心主義世界觀, 相信天命鬼神, 宣揚忠孝仁愛, 反犯上作乱, 嚴格等級 制度等等, 則是一剝削階級取得政權後共同要的理論武器. 由于这些原因, 漢以後 中國歷史上虽然屢经改朝換代, 孔子的"聖人"的地位却从未發生動搖. (중략) 但是必指出, 剝削階級被推翻, 代表它的思想是不自動出歷史舞臺的. 劉奇, 林 彪还在千方百計宣揚他们的孔孟之道, 圖抬出孔子这个僵尸, 爲地主資産階級的复辟制造輿論. 对于孔子及其思想學說在中國歷史上所産生的反動影响, 必充分估計并給 予徹底的批判和清算. 任继愈 主編,『中国哲学史简编』, 人民出版社(中國 北京), 1974. 74 – 75면 참조.

서 향후 중국에서 사회주의와 유교의 합일을 모색하기도 했다. 이 같은 그의 변화는 현재 새롭게 각광받고 있으며, 이는 변절자로 비판받아 온 과거의 평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추세로 인해 전년도 한국에서도 양계초의 연구가 이전 2014년보다 배 이상 나왔고, 내용에서도 중국적 관점을 배경으로 하거나 접목하여 재조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본론에서는 바로 한국의 양계초 연구의 성과를 중심으로 현재 중국 근대 유교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볼 것이다.

2. 인물별 분류

전년도 연구의 주요 인물로는 양계초이다. 다음은 2015년 발표된 양계초 연구 논문들이다.

분야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사학	김창규	「梁啓超(양계초)의 "중국적" 근대 기획」	『중국사연구』 97	중국사학회
철학	양일모	「20세기 초 중국의 근대국가 구상과 러시아 1차 혁명」	『인문논총』 72-1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정치	이영란	「상주 공양학(常州 公羊學)과 변법 공양학(變法公羊學)의 치세론(治世論)」	『인문사회21』 6-2	아시아 문화학술원
문학	이종민	「양계초(梁啓超)의 중국몽(中國夢)과 『신중국미래기(新中國未來記)』」	『中國學報』 71	한국중국학회
철학	이혜경	「양계초와 "혁명" 개념의 전변 - 『청의보』, 『신민총보』 시기를 전후하여」	『인문논총』 72-2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철학	임부연	「중국의 "종교"와 "유교" 논쟁- 캉유웨이康有爲(강유위)와 량치차오梁啓超(양계초)를 중심으로」	『퇴계학보』 137	퇴계학연구원

분야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사학	정지호	「梁啓超의 '帝國'論과 '大淸帝國'의 國體」	『동양사학연구』 132	동양사학회
사학	최형욱	「량치차오의 「日本倂呑朝鮮記」 연구」	『중국문화연구』 28	중국문화 연구학회

양계초의 연구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미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이는 중국 정부 주도의 유학열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이유는 근대사회에서 중화주의를 모색하고 나아가 사회주의를 유교로 해석하려는 양계초의 시도가 현대 중국 더 나아서 중국 정부의 의향과 부합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잠시 전후 양계초 관련 연구 동향을 보면, 초기에 양계초에 관심을 가진 연구는 주로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대표적인 초기 연구자는 1950 - 60년대 레벤슨(Joseph R. Levenson), 코헨(Paul A. Cohen) 등으로 이들은 미국을 포함한 당시 서구 사회의 모순을 극복할 목적으로 중국학을 연구하였다. 즉 당시 유교 관련 연구들은 서구 근대성에 대한 강한 회의와 대안 마련이라는 포스트모더니즘(post - modernism)의 영향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초기 연구는 결과적으로 '중국은 내부적으로 근대화를 이룰 수 없다.'는 막스 베버(Max Weber)의 결론에 다시 이르게 된다.

하지만 1970년대 중국계 미국학자들을 중심으로 중국 유교의 가능성을 모색하게 되었다. 동시에 일본의 경제성장과 관련해서 서구에서는 유교와 근대화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이후 경제학자인 모리시마 미치오[森島通夫]에 의해 "유교자본주의"라는 말이 처음 사용되었다. 또한 1980년대에 이르면 한국의 김일곤에 의해 유교자본주의는 체계적인 이론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 같은 근대담론 변화에 제일 늦게 합류한 것이 바로 중국이다. 197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 문화혁명은 '유교는 자본주의이고 사회주의의 적'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전제는 개혁개방정책 시행이후 1980년대까지 강한 여진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여진을 극복하고 중국 사회주의의 원형적 탐색을 위해 재조명한 인물이 바로 양계초이다. 리쩌허우[李澤厚]는 『중국근대사상사』에서 양계초에 대해 '과와 더불어 공도 있다.'고 평가했다. 물론 그가 말하는 '공'이란 1902년 이전에 남긴 양계초의 저술들이다. 그는 '이 저술들은 이후 중국의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교과서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루쉰[魯迅], 꿔마루어[郭沫若] 심지어 마오쩌똥[毛澤東]에서 대만의 지성인 후스[胡適]까지 양계초의 영향을 받은 인물들로 설명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리쩌허우가 '과'로 규정한 영역까지 재해석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가 사회주의와 유교가 동일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상은 현재 중국의 모순 극복 및 지향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특히 문화혁명으로 전통 가치 상당부분이 사라진 지금, 위에서 언급한 '사회주의 핵심 가치'처럼 유교적 가치를 사회주의의 가치로 재해석하는 일련의 과정은 바로 현대와 전통의 매개체인 양계초를 더욱 활발하게 연구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이것은 다시 한국의 양계초 및 중국 근대 관련 연구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한편, 양계초 관련 연구의 확장은 여타 인물들에 대한 연구를 삼키는 효과도 있었다. RISS만을 한정시켜 본다면, 강유위, 담사동, 우종산[牟宗三] 등 양계초 이외의 주요 인물들에 관한 연구는 극히 줄어들었다. 우종산의 경우에는 김제란,「모종삼 철학에 나타난 불교 사상 - 『불성과 반야(佛性與般若)』를 중심으로 - 」, 『동양철학연구』83, 동양철학

연구회, 2015.의 1편이 있지만, 유교관련 논문이 아니므로 현황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특히 과거 현대유교연구하면 빠질 수 없었던 대만신유가 그 중 특히 유교철학과 관련한 연구는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3. 주제별 분류

유교는 철학과 사상의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2015년 중국 근대 유교 연구는 이러한 유교의 전통적 연구 분야가 자취를 감추었다. 대신 유교의 현대적 가치와 기능, 현대화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보니 연구 분야도 전통적인 철학, 종교, 사학, 문학의 인문학보다는 사회학, 정치학 등의 사회과학의 파생연구가 많았다.

가. 현대 중국의 유교열

분야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사회학	김미정	유교와 계몽	사회와 이론24	한국이론사회학회
철학	김성실	신유학 개념은 타당한가?	인문학연구49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철학	송인재	21세기 중국 '정치유학'의 이념과 쟁점	유학연구33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철학	이동규	중국 공산당과 현대 신유학의 관계	동북아연구30-2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과거 사회분야 또는 사회학 분야의 논문은 주로 동아시아 근대성과 관련된 주제가 많았다. 그러나 2015년 연구에서는 이러한 근대성 연

구가 한국 유교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대신 중국의 유학열과 관련한 연구가 많았다. 특히 송인재나 이동규의 연구는 현재 대륙과 대만 사이의 유교를 두고 벌어지는 학적 긴장을 잘 드러낸 연구이다.

나. 기타

분야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사회학	김상준	「동아시아 근대의 고유한 위상과 특징」	사회와 이론 26	한국이론사회학회
사학	김창규	『신청년(新青年)』의 신문학운동과 중국의 근대성	역사학연구 59	호남사학회

기타 연구 주제로는 근대성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하지만 유교를 근대성의 중심 테제로 삼은 것은 아니다. 김상준은 "오늘날 '동아시아의 부상'은 '서구 근대의 위기'와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고 가정하면서 동아시아의 부상이 근대체계의 지속과 관련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김창규는 중국의 5.4운동이 근대를 지향하는 중국적 모델이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4.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여기서는 송인재와 이동규의 논문을 중심으로 중국의 유교열을 보는 한국학자들을 연구성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주목해야 할 논문은 송인재의 「21세기 중국 '정치유학'의 이념과 쟁점」이다. 송인재는 현대 중국 철학 연구자이다. 그는 중국의 유학을 '정치유교'라 명명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유학열이 전반적으로 국가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일치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유교의 패권을 다투기 위한 대만 신유학과의 충돌은 예상된 것이었다. 송인재는 먼저 중국의 유교확장과 강유위(康有爲) 연구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본 논문에서는 정치체제의 구상과 운영을 유학의 본질로 규정하는 이른바 '정 치유학'의 이념과 최근 벌어진 관련 논쟁에 주목하여, 그 이론적 특징과 현실적 위상을 검토한다. 특히 오늘날 중국의 유학이 '정치유학' 담론을 통해 현실에 뿌 리내리고 더 나아가 '대국굴기' 시대에 정치적 차원의 중국모델을 구축하는 데 적 극적 역할을 하려는 욕망을 발산하고 있음을 규명하려 한다. (중략)
> 정치를 유학의 본질이자 핵심으로 보는 이른바 '정치유학'의 사유는 소수의 경향에 머무르지 않고 중국 유 학계에서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중국 유학계에서 일고 있는 캉유웨이에 대 한 폭넓은 관심이 그것을 말해준다. 중국에서는 2014년 상반기에만 캉유웨이를 다룬 학술회의가 두 차례 열렸다. 회의에 참석한 탕원밍(唐文明, 1970~)은 이 일련의 회의가 대륙 유학계에서 대두되고 있는 '캉유웨이로 돌아가기(回到康有 爲)' 조류를 반영한 것이라 규정하고 더 나아가 중국 사상계에 '신캉유웨이주의 '가 출현했다고 평한다. 캉유웨이에 대한 관심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또한 같은 해 9월 푸단대학에서는 유학과 정치를 주제로 한 유학자들의 대담이 열렸다. 이 대담의 회고록에서도 캉유웨이의 이름이 거론되었다. 그리고 당시 2년 동안 중국 유학자들 사이에서 '캉유웨이

붐'이 일어났음을 언급하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가에 대해 물음을 던진다.7) '신캉유웨이주의', '캉유웨이붐'이라 불리는 일련의 현상과 인식들은 현대 중국의 유학자들 사이에서 정치가 핵심적 화두로 떠올랐고 그 사유의 매개로 근대의 사상가 캉유웨이가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런데 최근의 캉유웨이붐은 급작스럽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 중국 내에서 10년 넘게 형성된 학술조류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것은 바로 유학을 정치제도와 결부시켜 사유하려는 경향이다.

강유위는 양계초와 더불어 현대 중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근대 중국의 유교지식인이다. 이들은 모두 초기에는 봉건질서를 비판하기 위해 유교를 극렬히 비판하였지만, 중기를 지나면서 모두 중화주의 속에서 유교 부흥이나 창신을 넘어 오직 유교만이 중국이 나가야 할 길이라고 주장한 인물들이다.

이 논문의 백미는 중국학계에 대한 대만의 지성인 리밍후이[李明輝]의 비판이다. 송인재는 장칭[蔣慶] 등이 언급한 일명 '외왕(外王)유학', '제도 유학', '실천유학', '희망유학'의 '정치유학'에 대한 리밍후이의 비판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첫째, 대륙 신유가는 최근에 출현한 것이 아니다. 장칭을 위시한 몇몇 사람이 정치유학을 표방하지만 그 이전의 슝스리(熊十力, 1885~1968), 량수밍(梁漱溟, 1893~ 1988), 펑유란(馮友蘭, 1895~1990) 등이 이미 대륙에서 활동했는데 장칭처럼 주장하면 이들의 지위가 모호해진다.

둘째, 심성유학과 정치유학의 구분에 동의하지 않는다. 홍콩과 대만의 신유가들 도 정치를 등한시하지 않았다. 장쥔마이(張君勱, 1887~1969)는 본래 정치학자였고 그의 정치유학은 장칭 무리의 이론보다 훨씬 고명하다. 쉬푸관(徐復觀, 1903~1982) 도 학술과 정치 사이에서 활동했다. 머우쭝싼도 역사철학(歷史哲學), 정도와 치도(政道與治道), 도덕적 이상주의(道德的理想主義)의 이른바 '외왕삼서(外王三 書)'를 저술해서 정치철학을 논했다. 홍콩과 대만의 신유학을 심성유학이라고만 단 정할 수 없다.

셋째, 심성유학과 정치유학은 유학 전통에서 본래 구분할 수 없다. 장칭의 논리에 따르면 심성유학과 정치유학은 각각 송명유학과 공양학의 줄기에 따라 나뉜다. 그것은 공자 유학에서 공존했던 두 유학이 훗날 분열했다는 논리다. 하지만 유학에서는 본래 내성과 외왕이 연관되어 있고 둘 중 하나만을 말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장칭의 방법론에는 문제가 있다. 심성유학을 버리고 정치유학만을 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유학 전통이 아니다. -『專訪臺灣儒家李明輝 : 我不認同 '大陸新儒家'』(2015.1.24.)

아마 리밍후이가 말하고자 한 것은 바로 세 번째였다고 생각한다. 유교에는 내성과 외왕이 구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여전히 중국의 유교는 학적으로는 대만의 신유가를 뛰어 넘지 못한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 논문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는데, 첫째는 최근 중국에서 일어나는 강유위(또는 양계초) 연구의 근원적 원인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강유위 유교철학이 지닌 위상과 한계를 짚어낸다면 현재

중국의 유학열이 지닌 문제점을 분석하는데 보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강유위보다는 양계초가 현대 중국 유교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양계초보다 강유위를 중심으로 '정치유교'의 틀을 구축한 것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중국이 지향하는 '정치유교'가 전후부터 지속된 중국의 순자(荀子) 지향적 사고와 연결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이러한 철학사적 입장도 동시에 고려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동규 역시 현대 중국의 유학열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로 이어갔다. 그는 중국의 유교열의 미래적 가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 이렇게 중국 공산당이 대안적 이데올로기로 선택하고 발전시킨 현대신유학이 중국 공산당의 핵심 이데올로기로 발전할 수 있는가, 아니면 중국 사회주의 노선 건설을 위한 보조적 역할을 하는 데에만 머무를 것인가 하는 문제는 향후 중국의 정치체제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그는 중국이 유학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 그렇다면 중국 공산당이 신유학을 대안적 이데올로기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중국 공산당은 서구화에 반대하며 민족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신유학 사상이 중국 내에 들어온 자유주의 사상에 대항하는 데에 효과적이라고 인식하였다. (중략) 둘째, 중국 공산당

은 신유학을 통하여 문화대혁명으로 파괴된 민족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중화 민족주의의 발전 토대를 세울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중략) 셋째, 유교 자본주의라는 권위주의적 경제 모델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는 '이렇게 선택된 중국의 유학이 점차 확산되자 중국 정부는 신유학의 철학사상 즉 관념론인 심성론적 측면을 버리고 중국의 사회주의 노선 추구에 필요한 부분으로 유교를 재구성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런 평가는 현재 중국 유교를 잘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유교가 확산됨에 따라 중국 정부의 사상 통제가 어느 정도에 이를 것인지는 점차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논문에도 다소 미비점이 있다. 가장 큰 것은 용어 사용의 문제이다. 그는 현대 중국의 유교를 '현대신유학'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아마도 저자는 '신유학'을 현대 중국의 유학이나 고유명사가 아닌 '새로운 유학'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듯 하다. 그러나 '현대신유가'라는 명칭은 전후 대만에서 우종산[牟宗三], 시푸관[서복관], 당쥔위[唐軍偉]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가를 이르는 고유명칭이다. 또 주로 이들이 대만을 중심으로 한 학자라는 점에서 '대만신유가'라고도 한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최근 정부 주도로 복흥되고 있는 유학을 '현대신유가'라고 규정하는 것은 한국의 연구관례상 혼동을 줄 수 있으니, 차후에는 다른 표현을 부탁한다.

김창규의 『梁啓超의 '중국적' 근대 기획』은 양계초의 사상을 시기적으로 적절히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주로 후기만을 다루는 중국학계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 또한 그는 강유위와는 다른 그의 유교관을 다

음과 정리하였다.

> 그러나 양계초는 유교를 중국문화의 정수로 보기는 했지만, 강유위처럼 유교를 국교로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평가는 양계초가 강유위보다는 좀 더 합리적인 민족성을 지녔음을 대변한다. 그러나 양계초의 전적 중 마지막에 해당하는 『선진정치사상사』(1920)에는 '묵가를 민주정, 법가를 전제정, 그리고 유가를 사회주의'로 대비시키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양계초 역시 유교를 국가체제로 확립해야 한다고 했음이 보여 진다.

5. 평가와 전망

2015년 중국 근대 유교 연구는 양계초를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실제로 양계초 연구는 현대 중국의 유학열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양계초의 전적이 매우 많아 한 사람이 일관할 수는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대한 문사철의 체계적인 연구시스템이 구축되길 희망한다. 또한 나아가 양계초와 강유위를 중심으로 근대시기 중국 유교지식인들에 대한 심층적 연구도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년도의 이러한 성과는 향후 연구에서 현대 중국의 유학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것을 짐작하게 한다. 중국에서는 철학과 사학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등 전인문사회분야에서 유교와의 연결고리를 찾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이동규의 지적처럼 단순히 중국 사회주의를 지속하기 위한 부분적 채택인지, 아니면 중국사회 전반의 변화를 암시하는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학적 관심의 변동은 그동안 중국 근현대 유교의 주요 주제였던 근대성의 문제를 소외시키는 현상으로도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 경제가 G2의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경제발전을 중심으로 근대성에 대한 논의도 중요한 과제이며 어떤 형태로든지 지속되리라고 생각된다.